

주요내용

▶ 농업과 IT가 결합된 아그리테크(Agri-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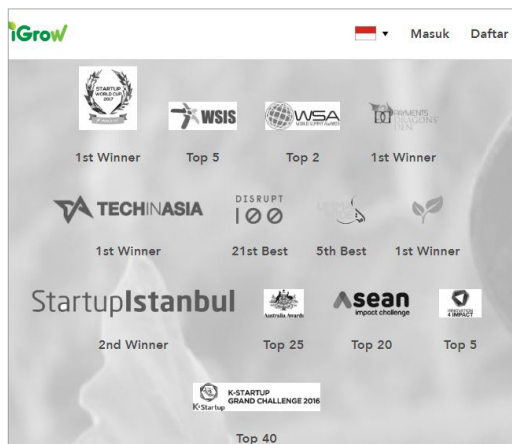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농업 부분은 전체 GDP의 약 14%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가구의 주 수입원 창출에 기여하는 등 여전히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전체 GDP 대비 농업생산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15-2019 5개년 정책방향을 통해 식량 자주권과 농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 ‘아그리테크’는 식품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식품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기술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수도권 및 지방에서 생산되어 도매상, 소매상 등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다.

▶ 농부가 직접 만든 아그리테크 스타트업, 아이그로우(igrow)

- 2014년 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창업한 ‘아이그로우’는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농부 지주 투자자를 하나로 이어주는 플랫폼이며 농가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유휴 농경지의 활성화, 투자 수익 창출, 고품질의 유기농 식재료 생산을 지향한다.
-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각 농산물의 가격, 수익률, 수확 시기, 계약 기간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사에 대한 지식 없이도 아보카도, 바나나, 망고, 두리안, 올리브 등을 재배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 투자한 농작물을 판매해 수익화하는 방식이며 이 기간 동안 플랜트 모니터링(Plant Monitoring) 기능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거나 필요시 투자자가 직접 농장에 방문할 수도 있다. 판매된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농부 및 지주와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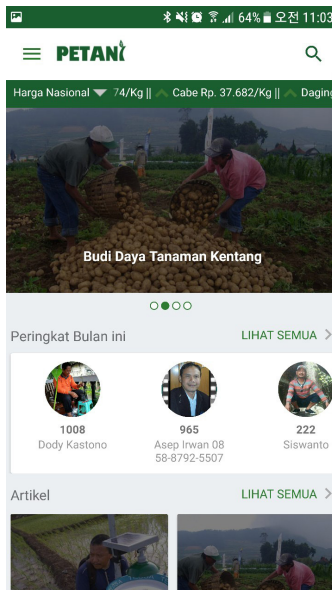
▲ 아이그로우 어플리케이션



▲ 아이그로우 수상내역

▶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보교류의 장, 8빌리지(8villages)

- 2014년 11월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8빌리지’는 농업 생산량과 효율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농부들에게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소셜플랫폼 기반 아그리테크이다.
- 한반도의 9배인 인도네시아는 농작지가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은 말레이시아 대비 약 10년 뒤쳐져 농업기술 전파가 시급한 상황이다.
- 8빌리지는 인터넷 외 2G/3G 등 각종 통신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농업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인도네시아 농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8빌리지 어플리케이션



▲ 8빌리지 전문가 피드백

* 참고자료

- igrow 홈페이지(igrow.asia)
- 8villages 홈페이지(8villages.com)
- Koran Sindo 홈페이지(http://koran-sindo.com)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유선), 「인도네시아 농업현황과 정책」

시사점

- 인도네시아의 농업분야는 식량생산 증진 및 바이오산업 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농업 인프라와 도서국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부 물류체계를 확충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국내 농업의 경우에도 농업종사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력 투입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그리테크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